

Fund Flow Weekly

■ SAMSUNG MARKET STRATEGY

글로벌 자금 순유입 지속

선진/신흥시장 모두 전 주 대비 유입 규모는 크게 축소

글로벌 자금 순유입 지속 (9월 20일~9월 26일): 금 주, 글로벌 주식형펀드로 총 10.6억달러가 유입되며 순유입 기조를 이어감. 그러나, 유입 규모가 전 주 대비 약 1/8배로 축소되면서 주가 모멘텀도 훼손된 모습.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각각 동 기간 동안 2.0%, 1.6% 하락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 개시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부채위기가 재점화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세가 둔화됨.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시장에서는 high-yield 채권이 선진국 국채와 같은 극단적 safety asset 보다 선호된다는 점에서, 위기 완화 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거 유입이 다시금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측면에서, 27일 스페인 정부가 지출 삭감에 동의하고, 구제금융 신청의 여지를 남긴 것은 위기 완화에 일조한 호재였음

● **선진시장:** 선진시장으로 주간 7.9억달러 순유입. 전 주 39.3억달러 유입대비 유입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은, 1) 태평양 펀드가 유출세로 전환됐고, 2) 인터내셔널과 서유럽 펀드로의 유입규모는 축소됐기 때문. 다만, 서유럽 펀드 내에서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 펀드에서는 유출이 발생했으나, 유럽지역 분산투자 펀드로는 자산대비 0.3%에 해당하는 자금 유입이 지속된 것이 긍정적. 반면, 일본 펀드는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개시에 힘입어 6주 만에 자금 유입세로 돌아섰으나,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닌도위다오 섬 관련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자금 유입 기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신흥시장:** 신흥시장으로 주간 2.8억달러 순유입. 전체 유입 규모는 전 주의 43.3억달러 대비 크게 축소됐으나, 아시아(일본제외)와 EMEA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오히려 확대됐고, 라틴아메리카 펀드로의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된 것은 긍정적. 아시아(일본제외)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중국, 한국, 인도 시장의 기여가 컸음. 중국의 경기 둔화 시그널은 마무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ETF를 이용한 저가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 인도 시장은 정부의 개혁조치에 힘입어 자금 유입이 재개되는 모습. 한국 시장으로도 자산대비 1.1%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으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ETF를 제외한 일반 펀드에서는 오히려 유출이 발생하며, 외국인의 개별 주식 매수 여력은 위축된 것으로 판단

국내자금 순유출 지속 (9월 21일~9월 27일): 주식형펀드부터 4.2천억원 순유출. 해외투자 주식형펀드부터의 환매는 확대된 반면, 국내투자 펀드부터의 순유출액은 1.2조원에서 3.1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됨. KOSPI가 2,000선을 다시 하회한 것도 환매액 축소에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주간 평균 KOSPI가 전 주 대비 0.5% 하락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8~9월에 걸쳐 발생했던 3.1조원의 환매를 통해 차익성 매물의 많은 부분이 소화됐다고 판단. 추가 환매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

업종별 매매동향 (9월 24일~9월 28일): 기관 투자자의 주간 순매수 및 현재 초과보유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1.1천억원의 순매수 지속. 매수는 반도체, 은행,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집중됐고, 이 중 은행업종의 초과 보유비중이 평균대비 낮아 수급 부담이 적음
- **국내기관:** 260억원의 순매도 지속. 그러나, 음식료, 화학, 유틸리티 업종에서 매수가 발생했고, 이들 업종의 초과보유 비중이 평균대비 낮아 추가 매수에 부담이 없음

해외 fund flows

(백만달러)	주간	4주누적	연초이후
GEM	(662)	2,668	28,085
아시아 (일본제외)	589	(404)	(4,582)
라틴 아메리카	160	1,114	(1,276)
유럽/중동/아프리카	189	(33)	(778)
International	78	4,233	11,431
태평양지역	(80)	(221)	(118)
일본	289	(82)	5,688
유럽	501	2,578	(17,681)

참고: 2012년 9월 26일 기준

자료: EPFR, 삼성증권

국내 fund flows

(십억원)	주간	4주누적	연초이후
주식형	(417)	(2,149)	(8,504)
국내투자펀드	(313)	(1,865)	(5,929)
해외투자펀드	(104)	(284)	(2,575)
혼합형	13	175	(798)
주식혼합형	10	(122)	(1,321)
채권혼합형	3	297	522
채권형	148	(546)	313
MMF	(4,480)	(6,132)	11,795

참고: 2012년 9월 27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목차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p2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p4
국내 펀드자금 동향	p6
기관투자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p8
부록1. 업종별 매매 추이 - 외국인	p9
부록2. 업종별 매매 추이 - 국내기관	p13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글로벌 펀드 98.5억 달러 순유입 지속

그림 1. 글로벌 fund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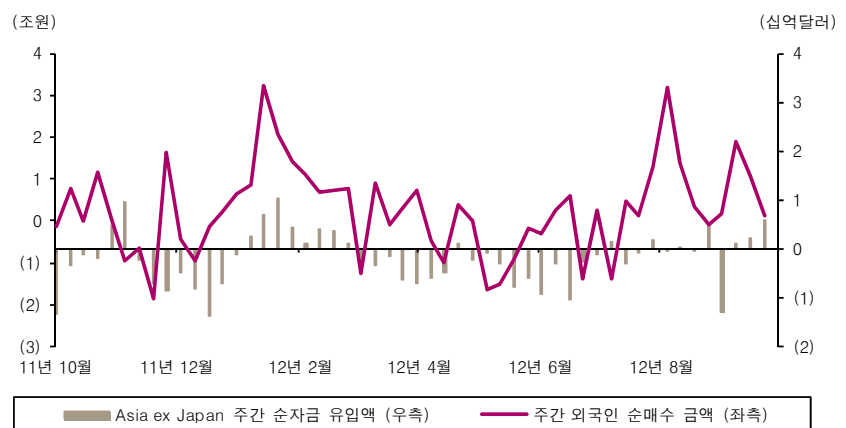
(백만달러)	설정잔액		순유입액			자본소득	
	금액	비중 (%)	주간*	4주누적	연초이후	금액	수익률 (%)
GEM	381,937	15.0	(662)	2,668	28,085	(6,134)	(1.6)
아시아 (일본제외)	232,202	9.1	589	(404)	(4,582)	(2,359)	(1.0)
라틴 아메리카	40,754	1.6	160	1,114	(1,276)	(968)	(2.3)
유럽/중동/아프리카	39,354	1.5	189	(33)	(778)	(754)	(1.9)
신흥시장 소계 (A)	694,247	27.3	276	3,345	21,448	(10,215)	(1.4)
International	1,168,690	45.9	78	4,233	11,431	(19,555)	(1.6)
태평양지역	38,820	1.5	(80)	(221)	(118)	(384)	(1.0)
일본	77,993	3.1	289	(82)	5,688	(1,475)	(1.9)
유럽	563,928	22.2	501	2,578	(17,681)	(7,202)	(1.2)
글로벌 소계 (B)	1,849,430	72.7	787	6,508	(680)	(28,615)	(1.5)
총계 (A+B)	2,543,677	100.0	1,063	9,853	20,768	(38,830)	(1.5)

참고: * 2012년 9월 20일~2012년 9월 26일 기준

자료: EPFR, 삼성증권

아시아(일본제외) 펀드 5.9억 달러 순유입 지속

그림 2. 아시아(일본제외) 펀드 자금유입 vs 한국시장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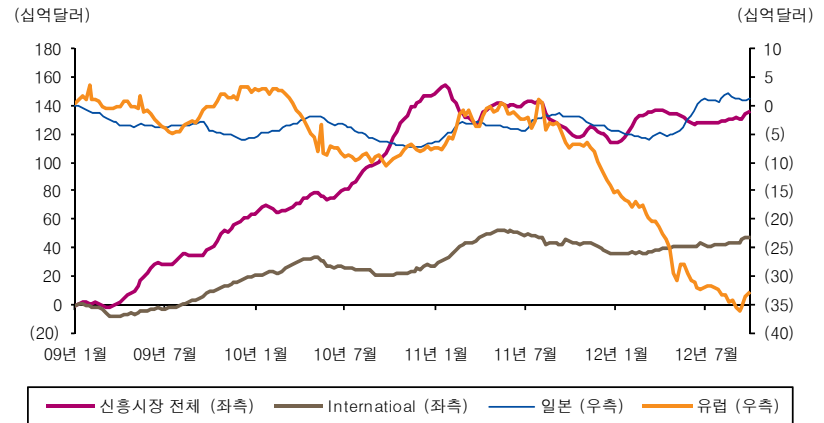


참고: 최근 52주간

자료: EPFR, 삼성증권

신흥시장 연내 유입기조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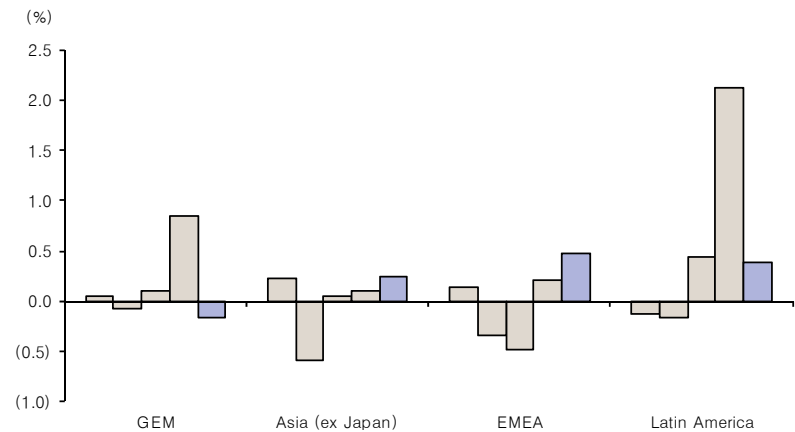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자금 유출입 추이 (2009년 1월 이후 누적)



자료: EPFR, 삼성증권

GEM 제외 신흥시장 전지역 순유입

그림 4. 신흥시장 지역별 자금 유출입 추이 (자산규모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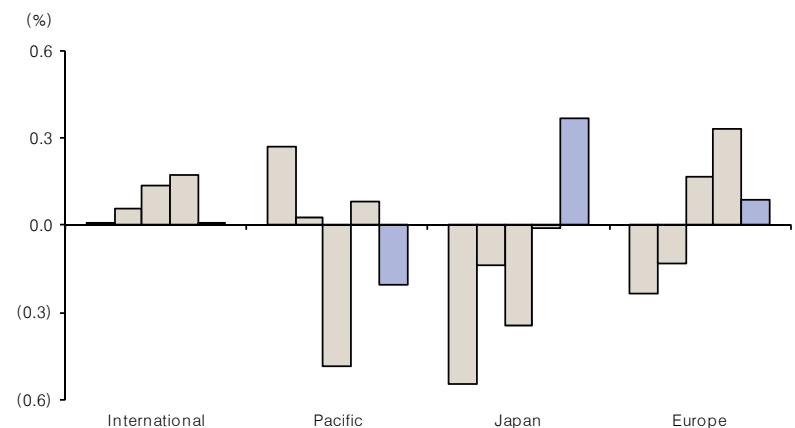


참고: 최근 5주간

자료: EPFR, 삼성증권

태평양지역 제외 선진시장 전지역 순유입

그림 5. 글로벌 시장 지역별 자금 유출입 추이 (자산규모 대비)



참고: 최근 5주간

자료: EPFR, 삼성증권

■ 목차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p2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p4
국내 펀드자금 동향	p6
기관투자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p8
부록1. 업종별 매매 추이 - 외국인	p9
부록2. 업종별 매매 추이 - 국내기관	p13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그림 6. 아시아 주요국가 외국인 순매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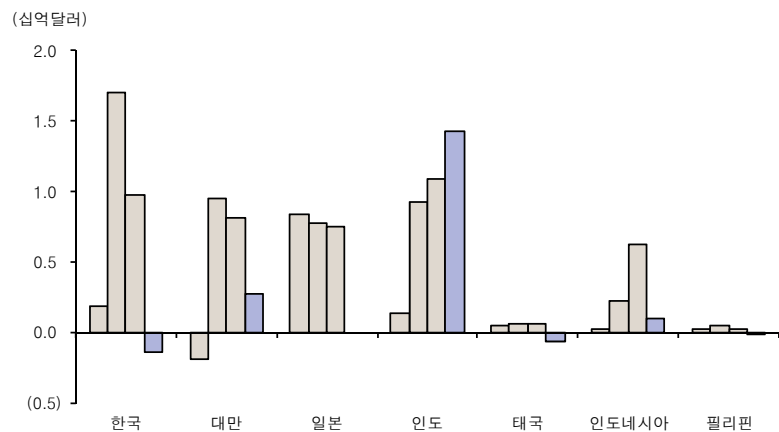
(백만달러)	한국	대만	일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간*	(141)	276	n/a	1,430	(62)	104	(0)
2주누적	842	1,084	1,525	2,518	(3)	732	19
4주누적	2,740	1,837	1,796	3,587	107	983	83
2009년 이후	49,633	18,439	37,755	64,996	5,849	8,150	5,180

참고: * 2012년 9월 21일~9월 27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인도를 제외하면 외국인 매수세 둔화 및 매도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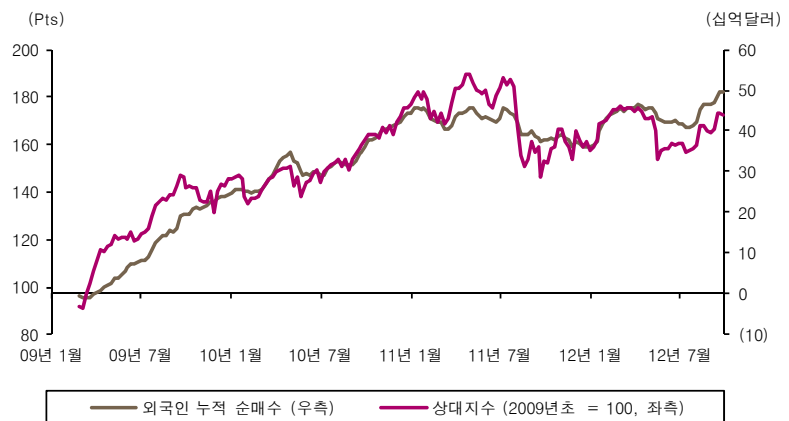
그림 7. 국가별 외국인 주간 순매수 추이



참고: 최근 4주간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8. 한국: 외국인 누적 순매수* vs KOSPI



참고: * 2009년 1월 이후

자료: KRX, 삼성증권

그림 9. 대만: 외국인 누적순매수 vs Tai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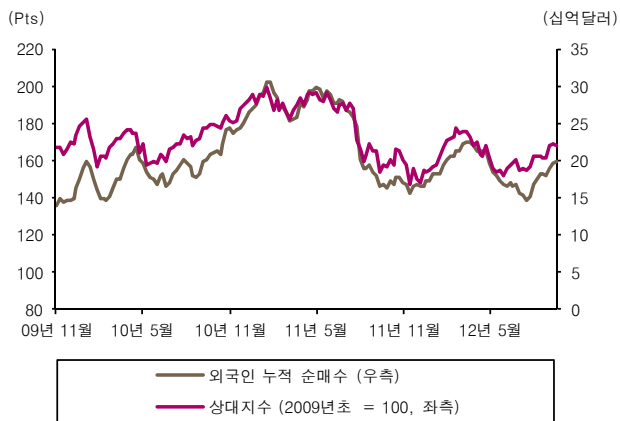


그림 10. 일본: 외국인 누적순매수 vs Nikkei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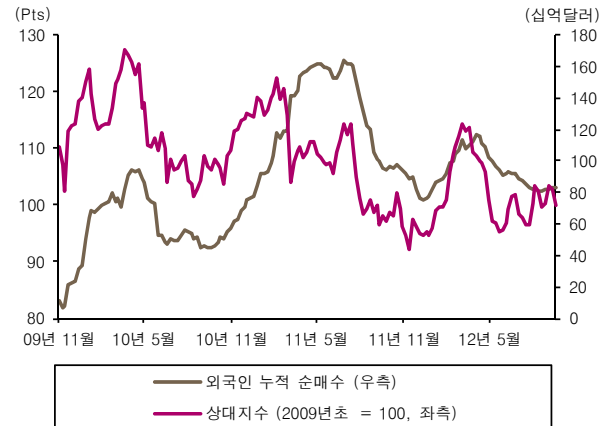


그림 11. 인도: 외국인 누적순매수 vs BSE Sensex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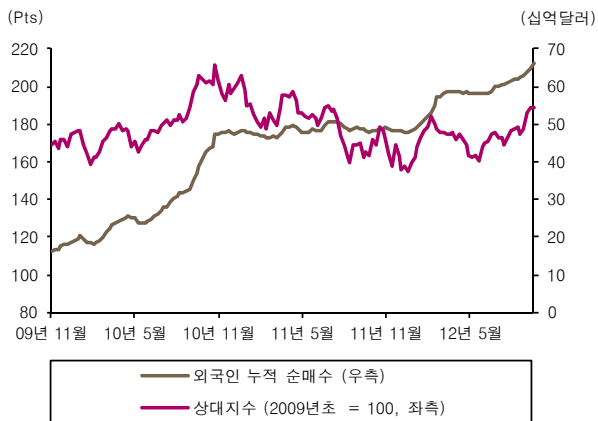


그림 12. 태국: 외국인 누적순매수 vs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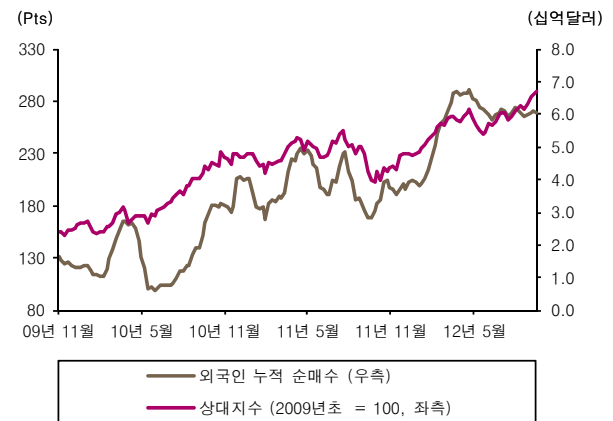


그림 13. 인도네시아: 외국인 누적순매수 vs J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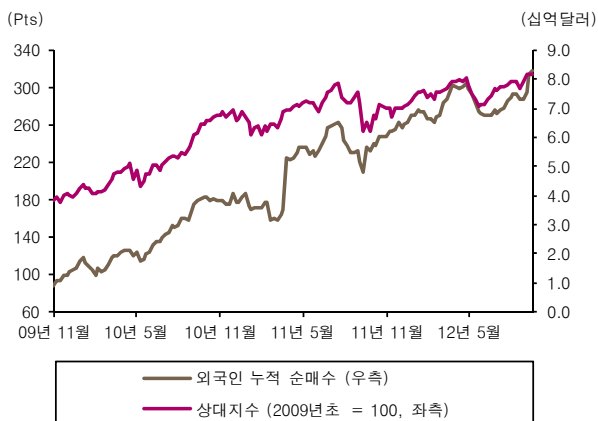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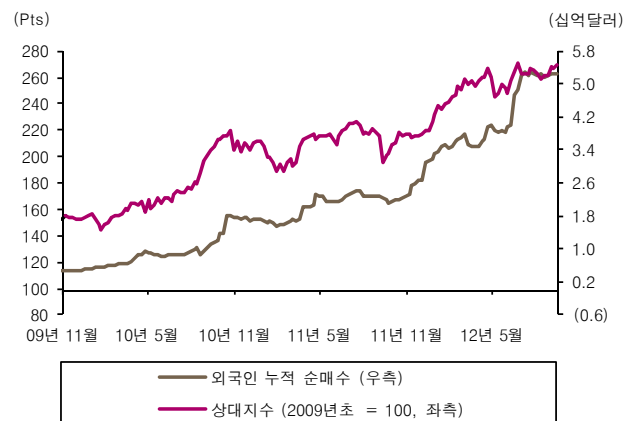


그림 14. 필리핀: 외국인 누적순매수 vs PSEi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목차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p2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p4
국내 펀드자금 동향	p6
기관투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p8
부록1. 업종별 매매 추이 - 외국인	p9
부록2. 업종별 매매 추이 - 국내기관	p13

국내 펀드자금 동향

전주 대비 Kosp이 평균 0.5% 하락한 가운데 국내펀드 순유출 지속

그림 15. 국내 fund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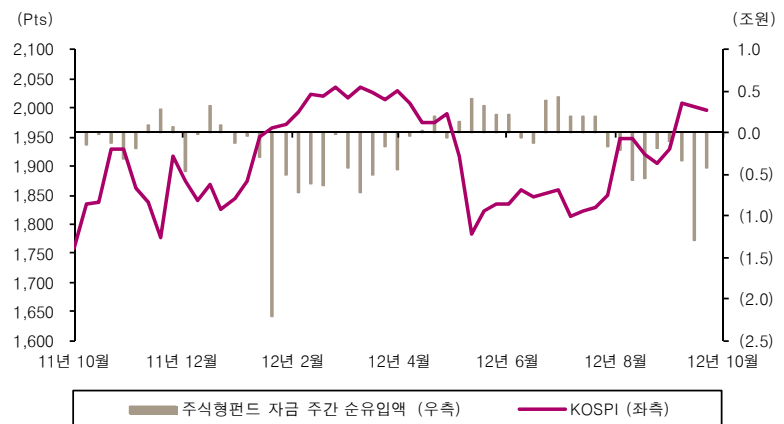
(십억원)	설정잔액		순유입액			
	금액	비중 (%)	주간**	비중 (%)	4주누적	'12년초이후*
수익증권*	239,273	100.0	(4,737)	(1.98)	(8,651)	2,806
주식형 (ETF 제외)	96,390	40.3	(417)	(0.17)	(2,149)	(8,504)
국내투자	68,676	28.7	(313)	(0.13)	(1,865)	(5,929)
해외투자	27,713	11.6	(104)	(0.04)	(284)	(2,575)
혼합형	29,302	12.2	13	0.01	175	(798)
주식혼합형	10,672	4.5	10	0.00	(122)	(1,321)
채권혼합형	18,631	7.8	3	0.00	297	522
채권형	44,511	18.6	148	0.06	(546)	313
MMF	69,070	28.9	(4,480)	(1.87)	(6,132)	11,795

참고: * 증권 및 단기금융 합계; ** 2012년 9월 21일~2012년 9월 27일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해외투자형 펀드 1,040억원 순유출 지속
국내투자형 펀드 3,130억원 순유출 지속

그림 16.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vs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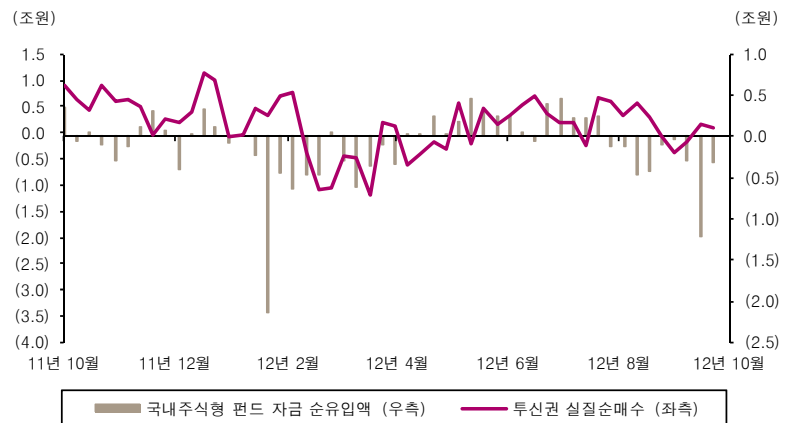


참고: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펀드 합계(ETF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삼성증권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제외하면 국내기관은 340억원을 실질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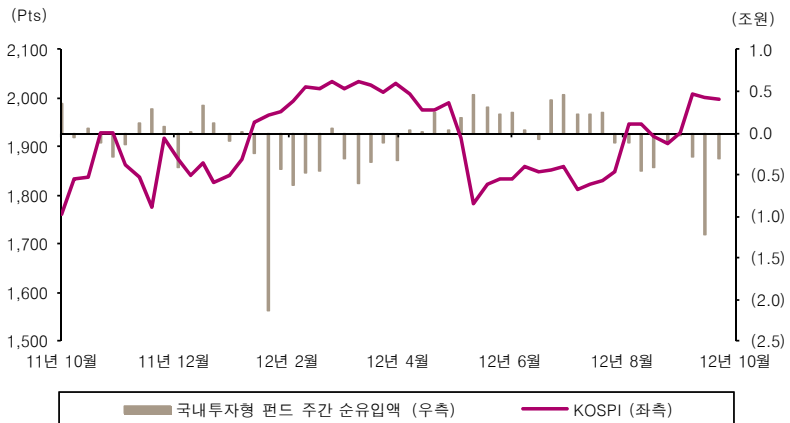
그림 17. 투신권 실질 순매수 vs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참고: ETF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KRX, 삼성증권

국내투자형 펀드 순유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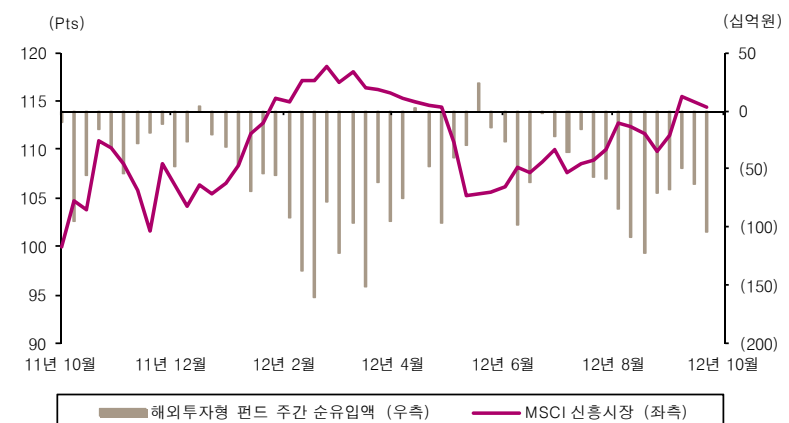
그림 18. 국내투자형 펀드 자금 유입 vs KOSPI



참고: ETF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KRX, 삼성증권

해외투자형 펀드 순유출 지속

그림 19. 해외투자형 펀드 자금 유입 vs MSCI 신흥시장 지수



참고: ETF제외
자료: 금융투자협회, KRX, 삼성증권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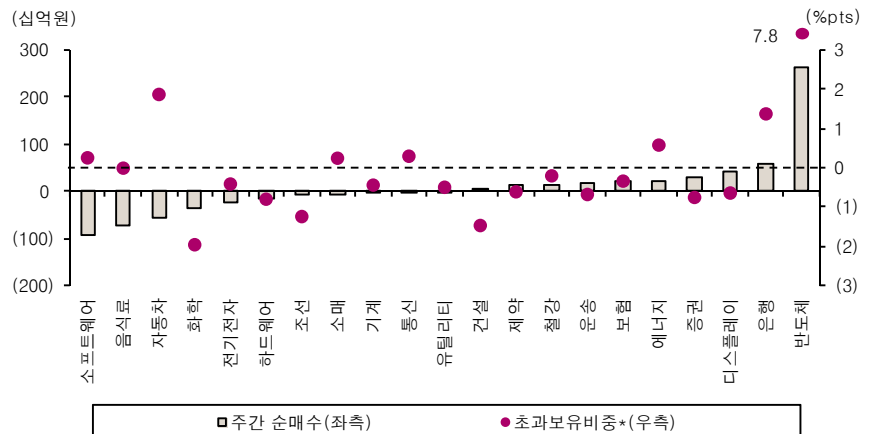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p2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p4
국내 펀드자금 동향	p6
기관투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p8
부록1. 업종별 매매 추이 - 외국인	p9
부록2. 업종별 매매 추이 - 국내기관	p13

기관투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외국인은 1,140억원 순매수 지속

주로 반도체, 은행, 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한 반면 소프트웨어, 음식료, 자동차
등을 순매도

그림 20. 외국인 주간 순매수 vs 초과 보유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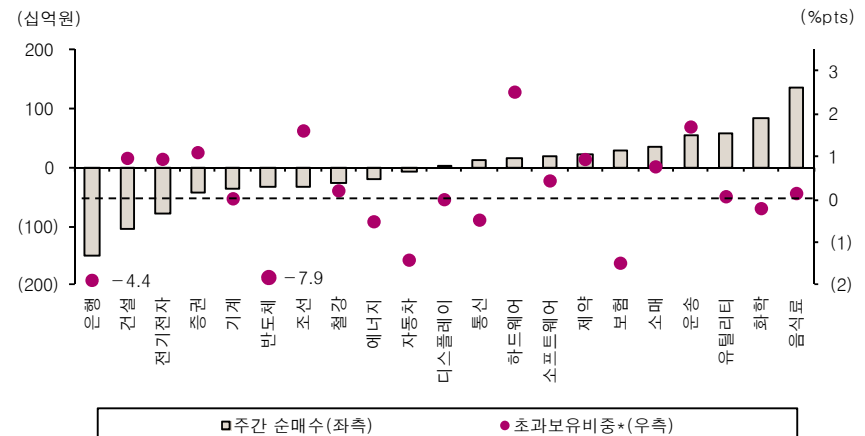


참고: 2012년 9월 28일 기준, * 유통시가총액 기준으로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높은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국내기관은 260억원 순매도 지속

은행, 건설, 전기전자 등을 순매도한 반면
음식료, 화학, 유틸리티 등을 순매수

그림 21. 국내기관 주간 순매수 vs 초과 보유 비중²



참고: 2012년 9월 28일 기준 * 유통시가총액 기준으로 반도체, 은행은 구조적으로 낮은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¹ Kospi 유통시가총액 내 업종별 비중(A)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내 업종별 비중(B)을 차감하여 계산.

² Kospi 유통시가총액 내 업종별 비중(A)에서 국내기관 시가총액 내 업종별 비중(C)을 차감하여 계산.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과 달리 국내기관 보유 시가총액은 일별로 공시되지 않아 2008년 6월 30일(국내 주식형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의 비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비중을 국내기관 투자비중으로 대용(proxy). 이후 일별 업종 지수 성과와 국내기관 순매수 금액을 반영하여 추정한 수치임.

■ 목차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p2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p4
국내 펀드자금 동향	p6
기관투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p8
부록1. 업종별 매매 추이 - 외국인	p9
부록2. 업종별 매매 추이 - 국내기관	p13

부록 1. 업종별 매매 추이³ - 외국인

그림 22. 에너지: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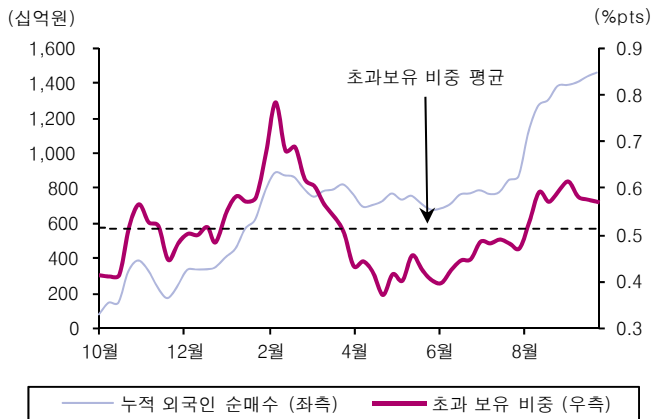


그림 23. 화학: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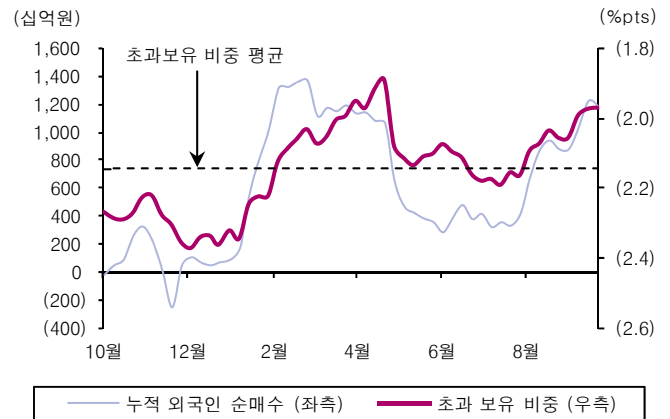


그림 24. 철강: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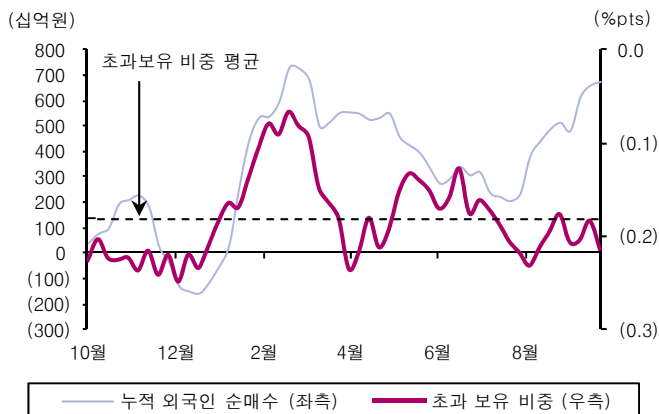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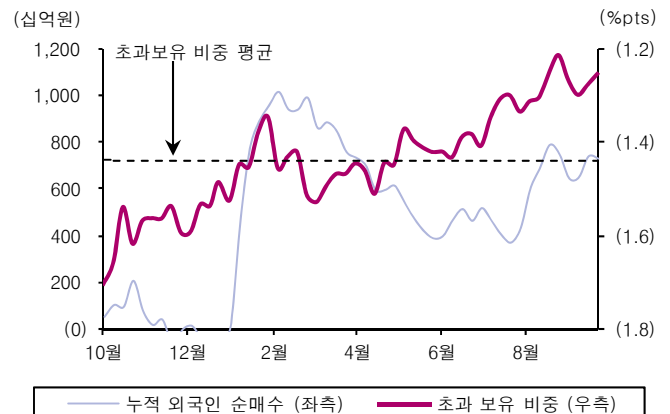


그림 25. 조선: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³ 초과 보유 비중은 Kospi 섹터비중 대비 차이

그림 26. 건설: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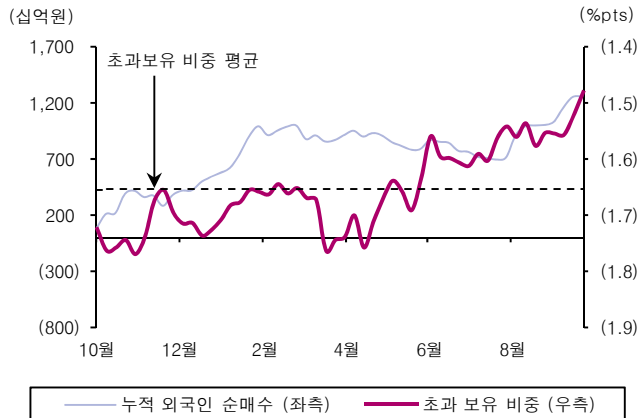


그림 27. 운송: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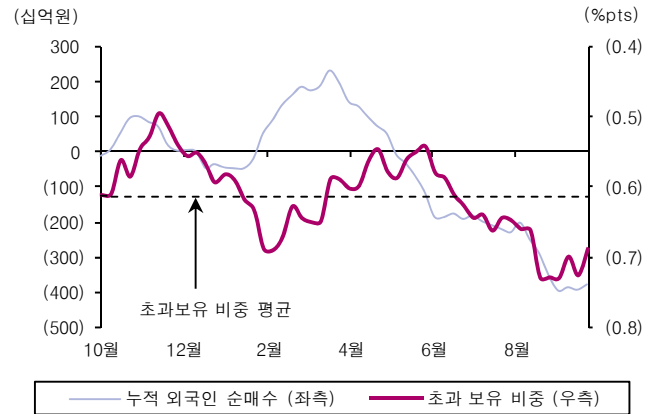


그림 28. 기계: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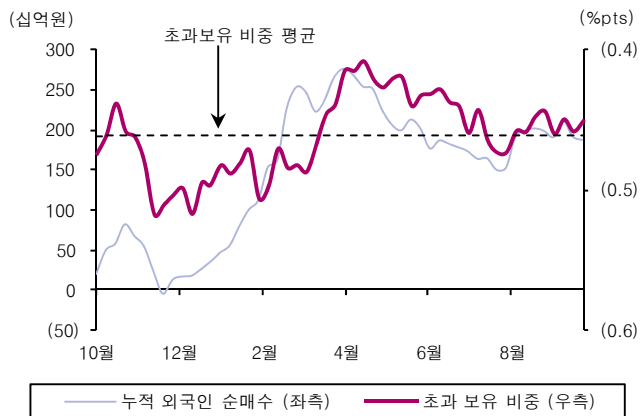


그림 29. 자동차: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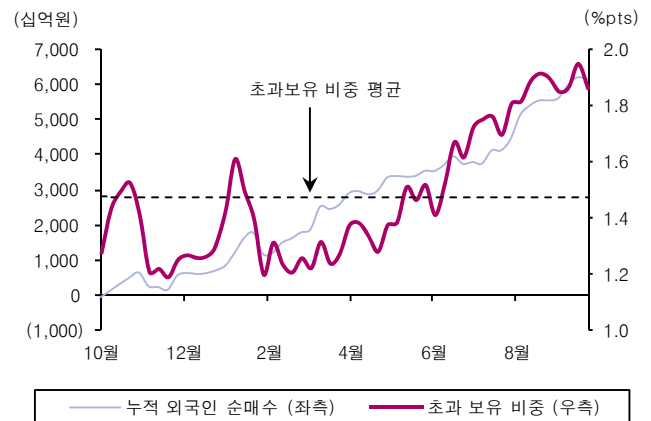


그림 30. 소매: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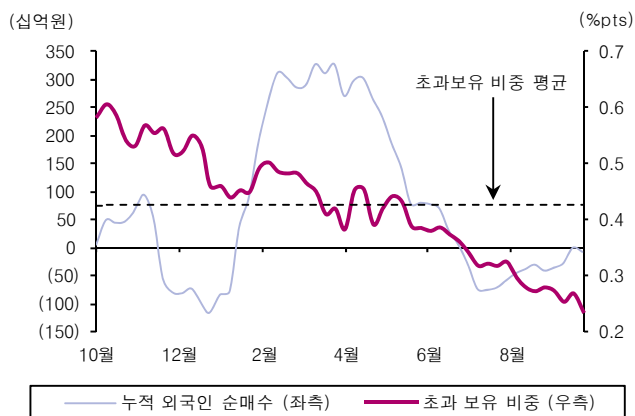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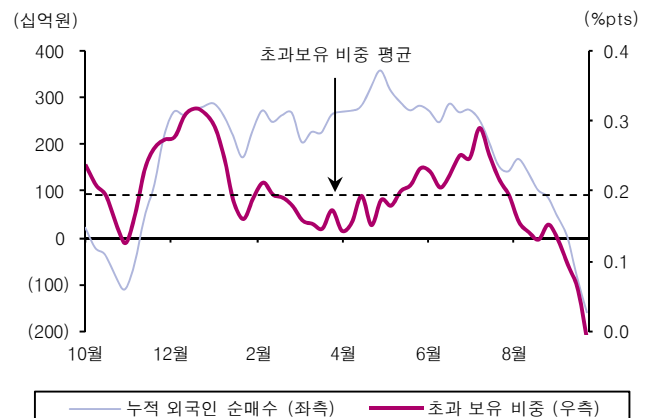


그림 31. 음식료: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그림 32. 제약: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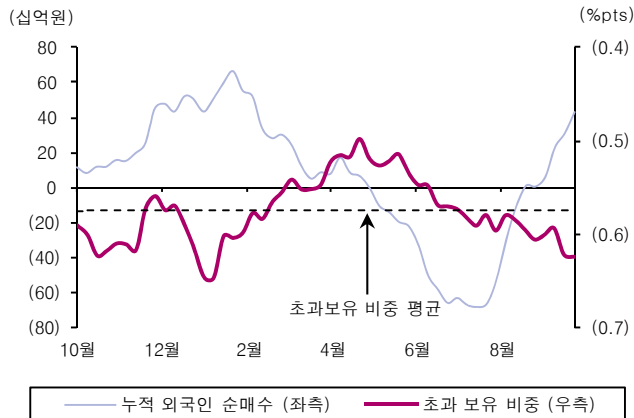


그림 33. 은행: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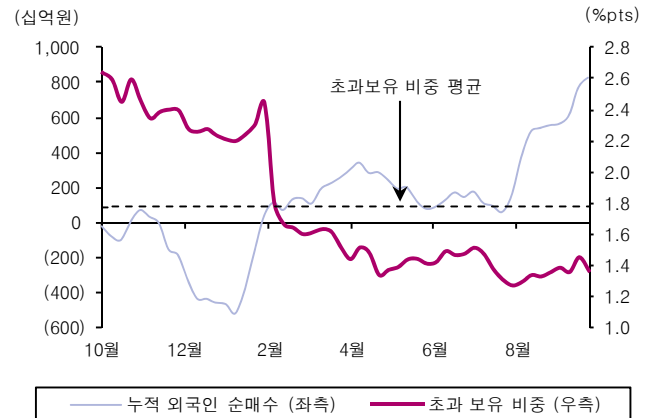


그림 34. 보험: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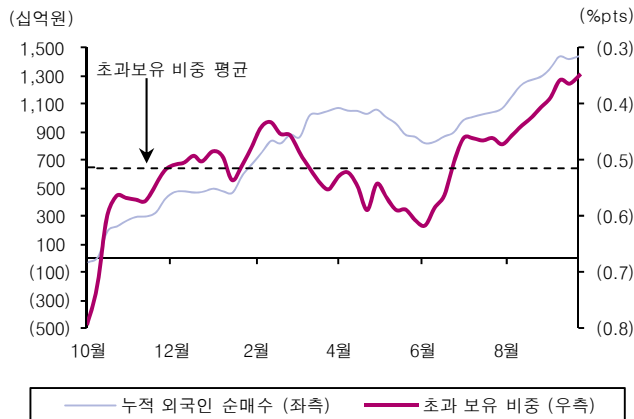


그림 35. 증권: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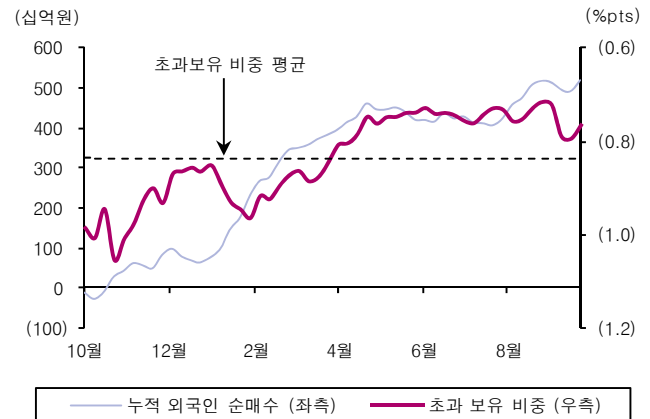


그림 36. 반도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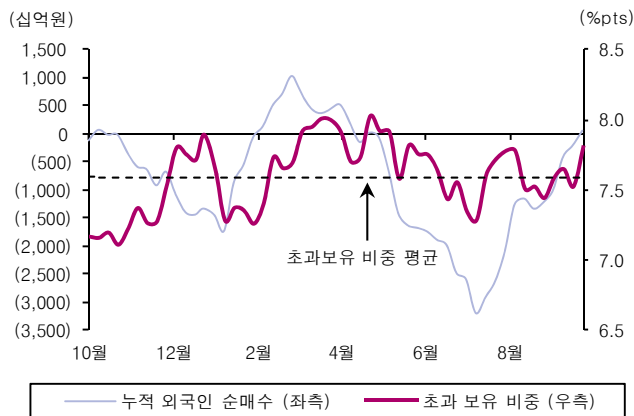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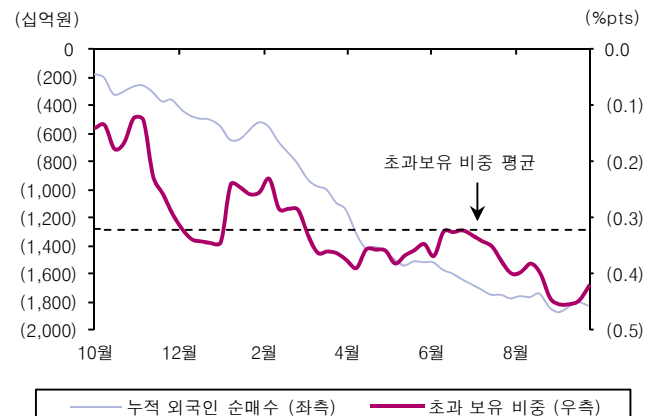


그림 37. 전기전자: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그림 38. 소프트웨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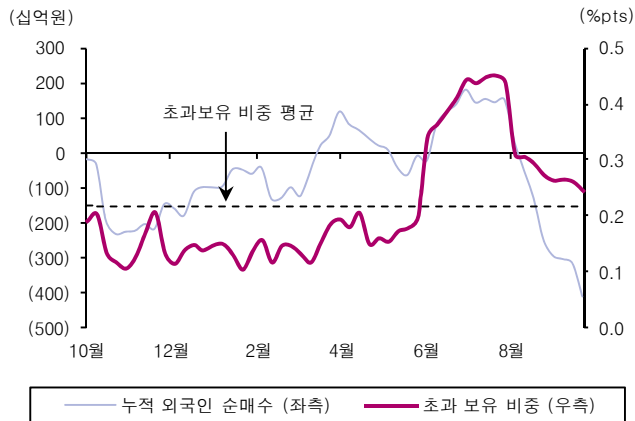


그림 39. 디스플레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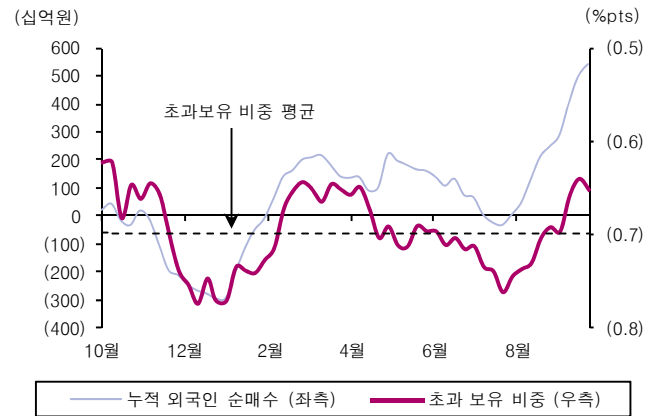


그림 40. 하드웨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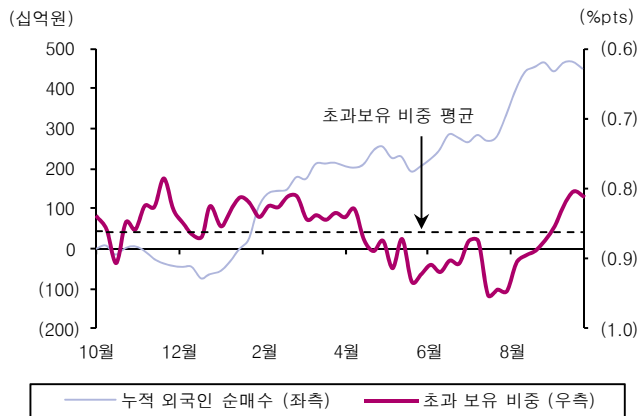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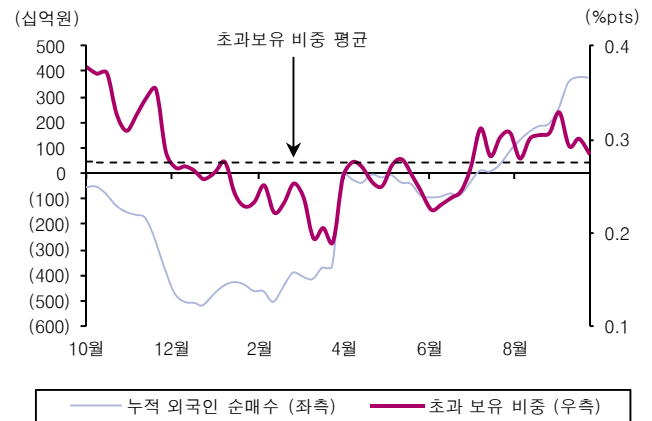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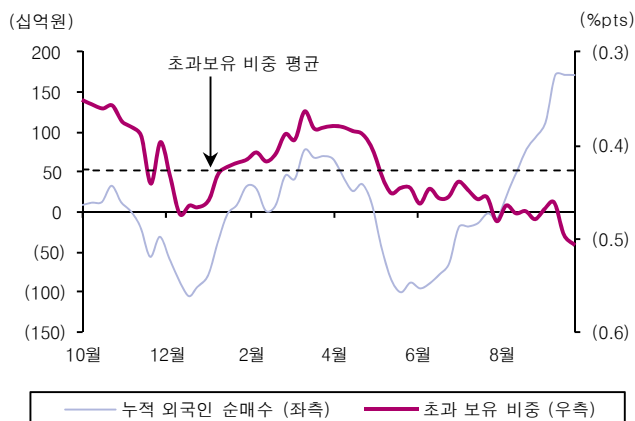


그림 41. 통신: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그림 42. 유틸리티: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 목차

글로벌 펀드자금 동향	p2
글로벌 증시 외국인 매매동향	p4
국내 펀드자금 동향	p6
기관투자가 업종별 매매동향	p8
부록1. 업종별 매매 추이 - 외국인	p9
부록2. 업종별 매매 추이 - 국내기관	p13

부록 2. 업종별 매매 추이⁴ - 국내기관

그림 43. 에너지: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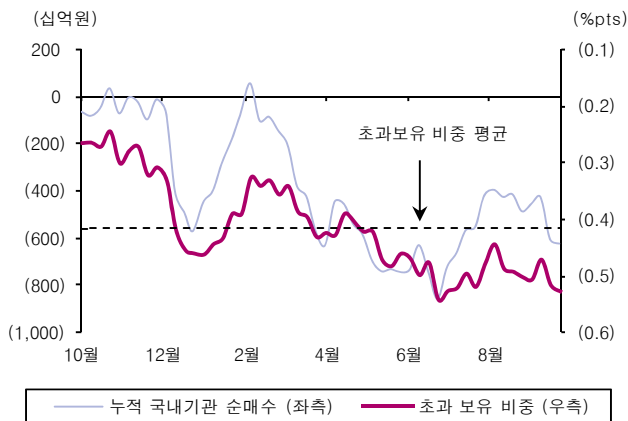


그림 44. 화학: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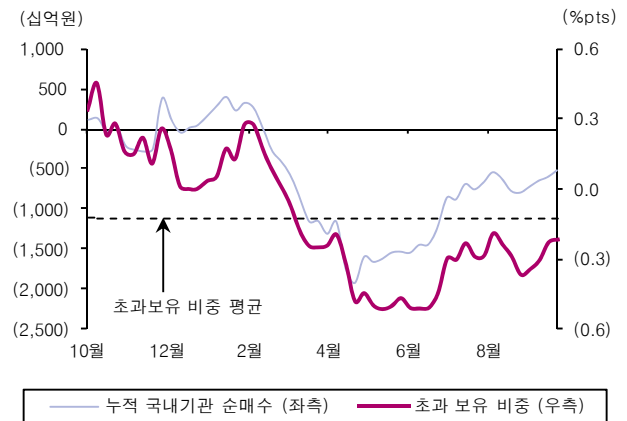


그림 45. 철강: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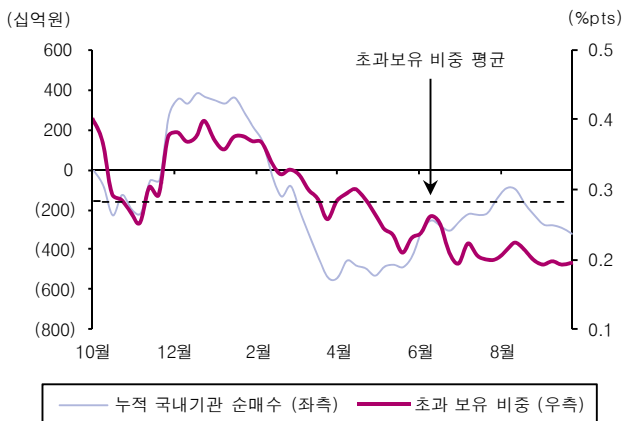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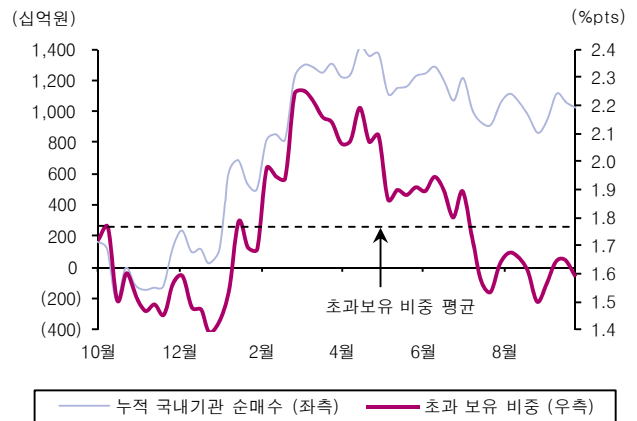


그림 46. 조선: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⁴ 초과 보유 비중은 Kospi 섹터비중 대비 차이

그림 47. 건설: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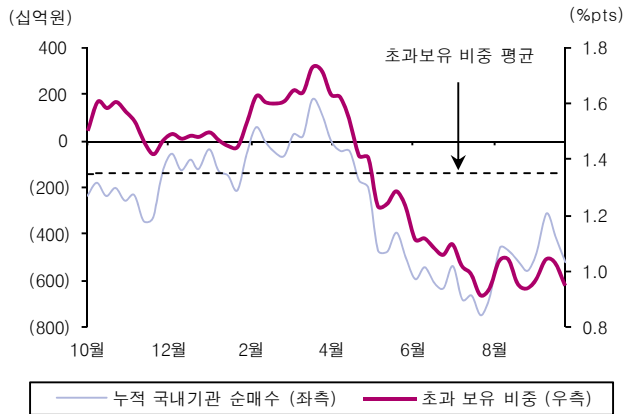


그림 48. 운송: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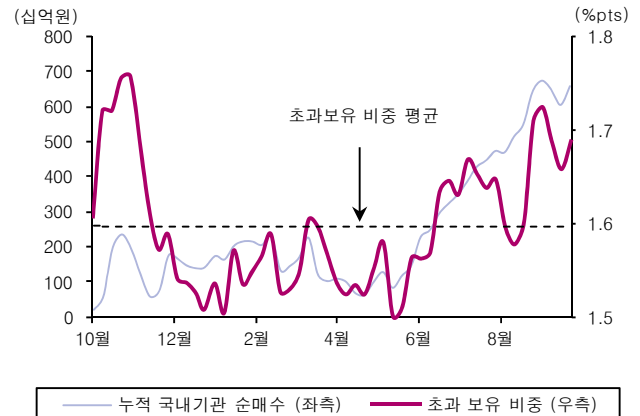


그림 49. 기계: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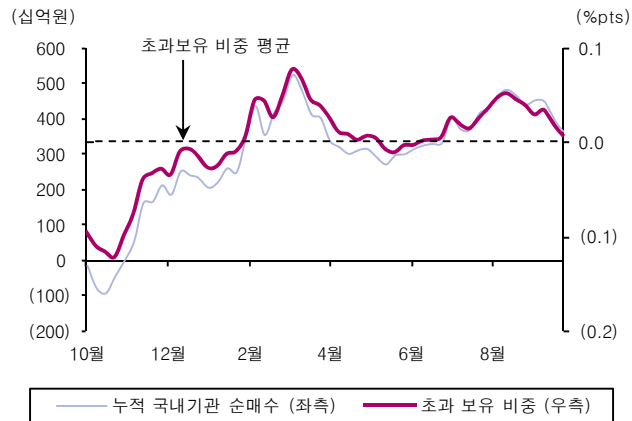


그림 50. 자동차: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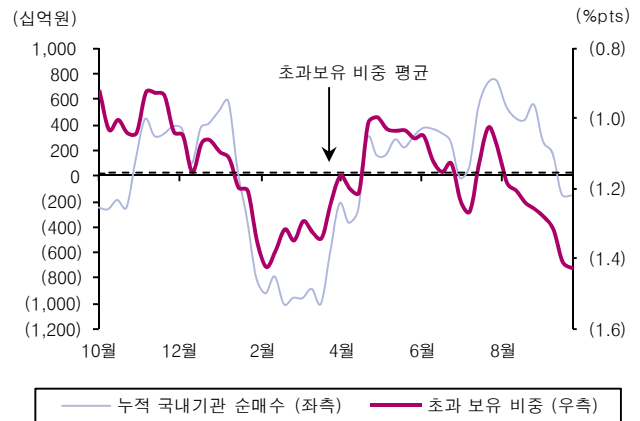


그림 51. 소매: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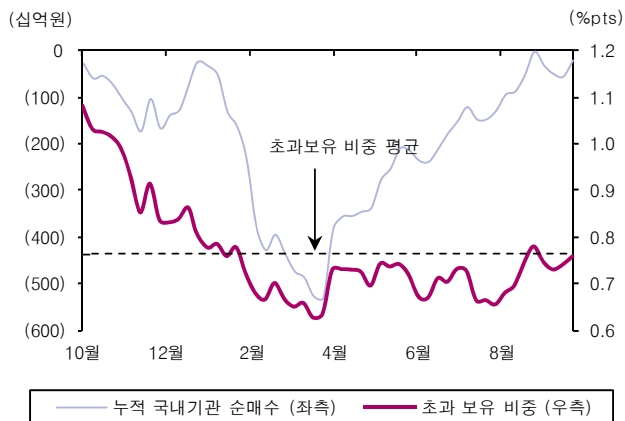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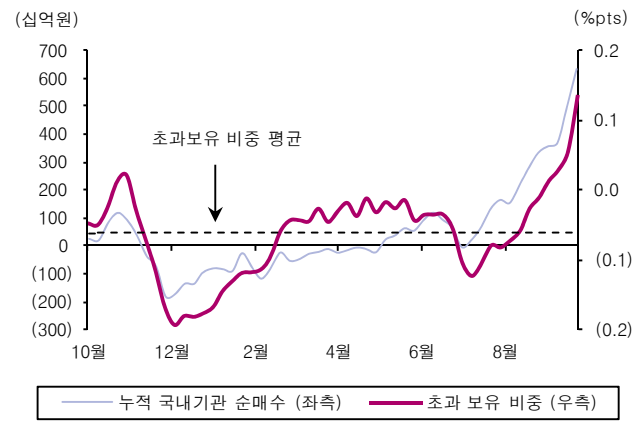


그림 52. 음식료: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그림 53. 제약: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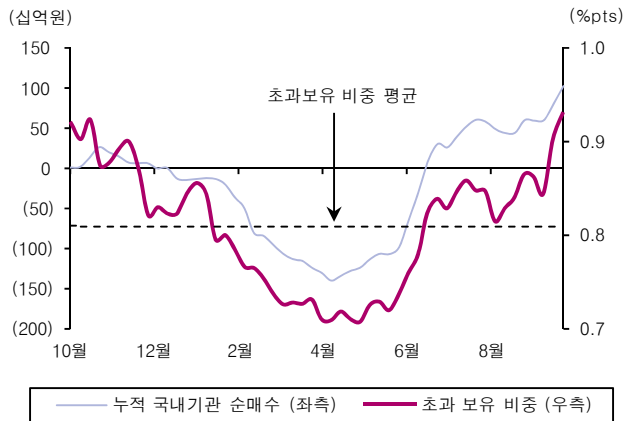


그림 54. 은행: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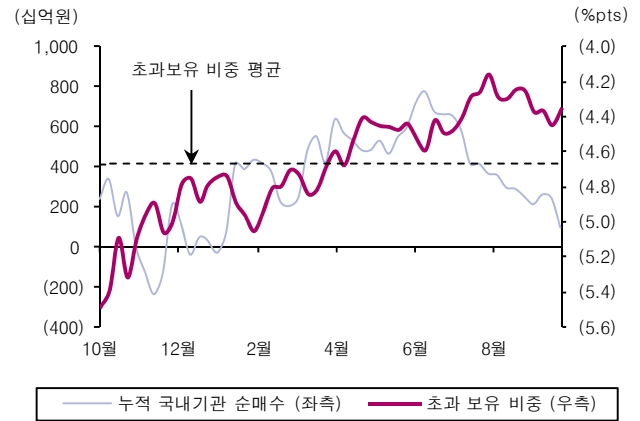


그림 55. 보험: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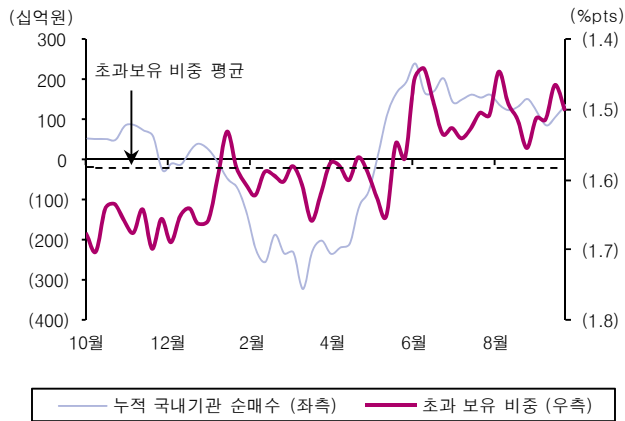


그림 56. 증권: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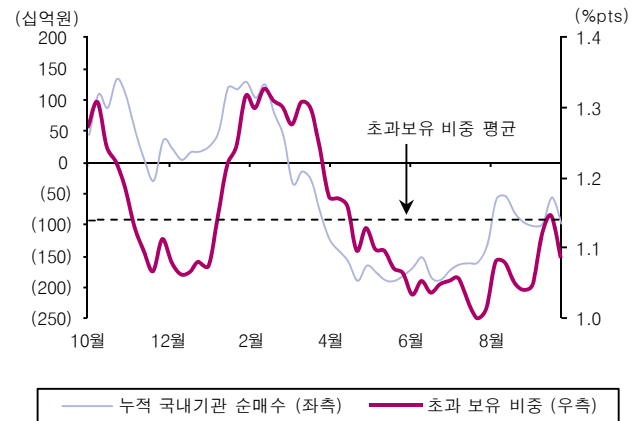


그림 57. 반도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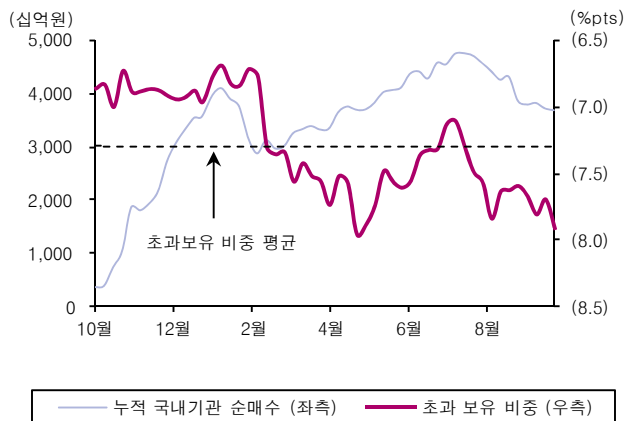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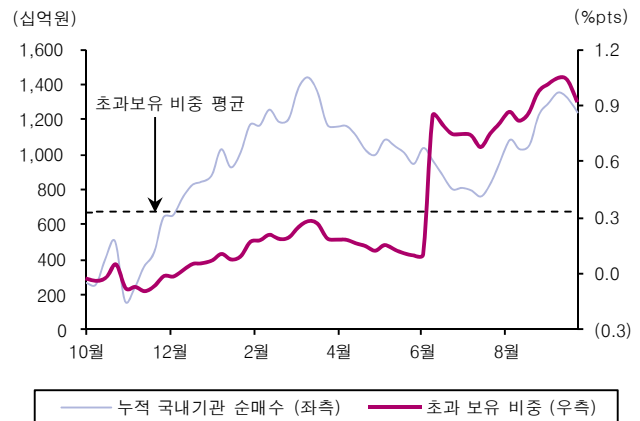


그림 58. 전기전자: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그림 59. 소프트웨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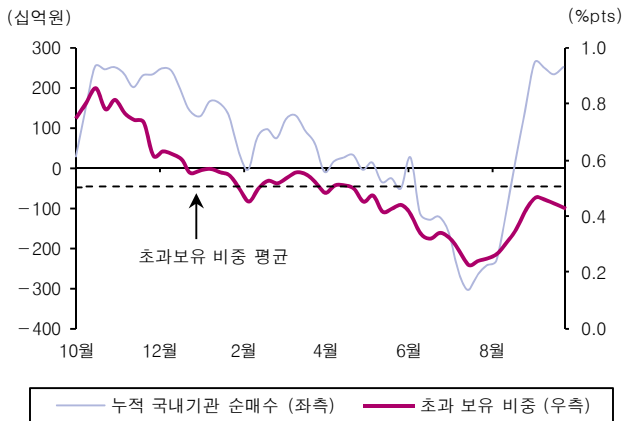


그림 60. 디스플레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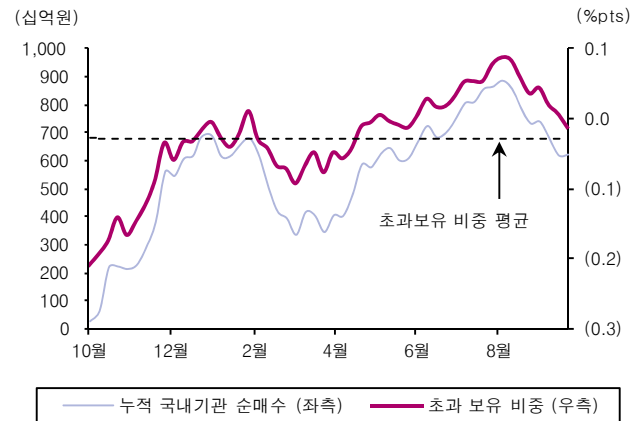


그림 61. 하드웨어: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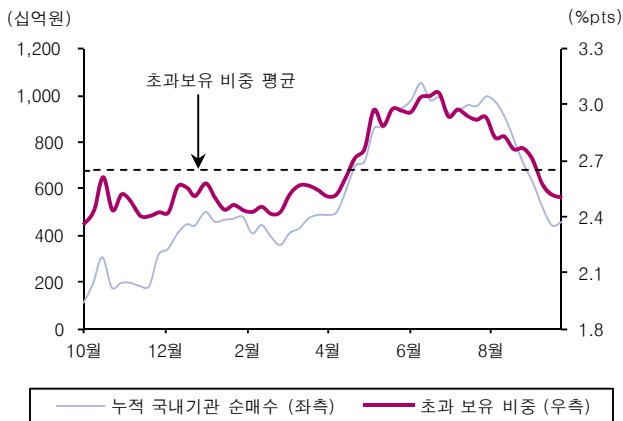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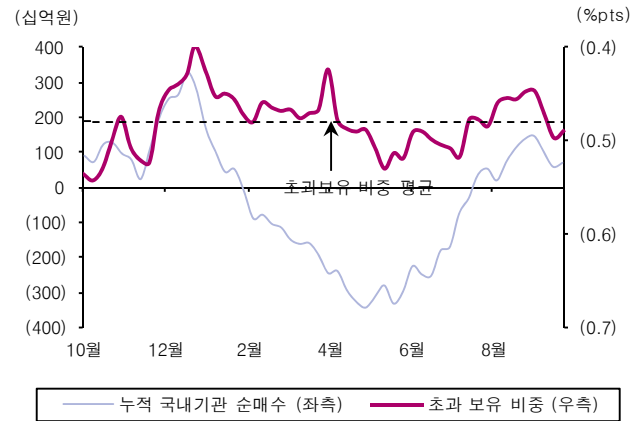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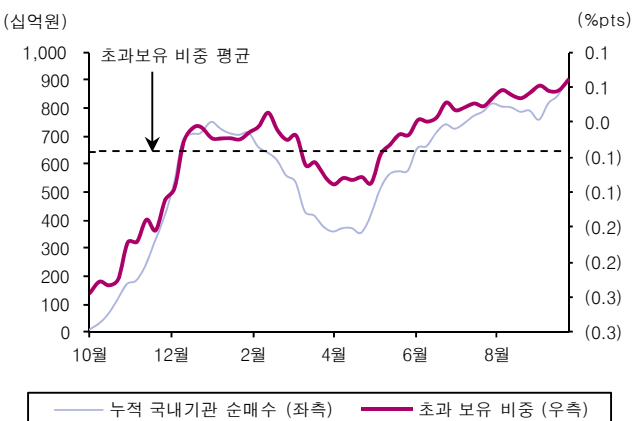


그림 62. 통신: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그림 63. 유틸리티: 누적 순매수 vs 초과보유 비중



자료: Wisefn, 삼성증권 추정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0층 리서치센터 / Tel: 02 2020 8000
- 삼성증권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 고객센터 접수 080 911 0900